

2021. 09.16. 15:00

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기금팀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매

이 사 장	송 경 용	
국 장	남 철 관	010-3246-6674
담 당 자	이 제 원	010-4274-8237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왜곡을 멈추고 민관 협력을 통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련 왜곡 발표에 대한 [사]나눔과미래 입장

-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통해 “민간 위탁, 민간보조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실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 사회투자기금은 민간위탁도, 민간보조도 아닌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재융자하는 사업으로 8년 만기 조건으로 전액 서울시에 상환하고 있어 오히려 예산 절감 사례라 할 수 있다.
- 또한 사회투자기금의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발표는 모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단체를 관리부실로 몰아가고 있다.
- 오세훈 시장도 밝혔듯이 시정은 공익의 실현이 목표로, 더 이상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협력의 대상인 민간단체를 비난하는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익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 사례로 든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다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면 혈세”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 사회투자기금은 2016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지만, 2017년부터는 민간단체가 자체 매칭자금의 투입을 전제로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 2년거치 6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 지금은 ‘민간위탁’도, ‘민간보조’도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입금 상환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간단체가 지게 되므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다시 서울시로 환수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사회투자기금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비난에 불과하다.
- 또한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4~2016년 동안 융자된 건으로, 모두 서울시가 관리하는 채권으로, 2017년부터 현행과 같이 민간기관이 융자했던 사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 사회투자기금은 2016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현재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채권은 서울시에서 회수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 이는 민간단체가 서울시보다 기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나눔과미래는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조성한 매칭자금 28.45억 원을 투입하여 100.5억 원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45동(1,065세대)의 사회주택에 102억 원을 융자하여 사회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과정

에서 서울시 기금의 1%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을 뿐이고 서울시 규정에 따라 그중 7% 이내에서 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대부분 과거 민간위탁을 할 때 지출한 40억 원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가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나눔과미래는 서울시의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심의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나눔과미래는 이자를 활용하여 대손충당금 8,000만 원(금융감독원의 20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0.64%를 융자금액에 적용시 부실채권 예상금액은 6,500만 원으로, 이보다 많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적립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눔과미래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융자이자 1억 9,000만 원, 예금이자 7,600만 원) 등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총 4억 8,000만 원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주택 입주민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나눔과미래 지원실적〉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건수	지원금액(원)	비고
사회주택 사업자	사회주택 역량강화	사회적경제주체가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비 지원	18	34,643,279	-
	사회주택 컨설팅	재무, 건축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5	7,920,000	-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이 원하는 홍보물 (웹페이지/동영상/디자인물) 제작 지원	22	11,335,116	-
	커뮤니티 공간지원	사회주택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7	39,969,115	-
	코로나 특별금리 감면	공실률이 20%가 넘는 사회주택에 매월 상환금리를 2%에서 1%로 낮춰줌	87	7,848,090	-
사회주택 입주민	사회주택 보증금 융자사업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보증금 융자	24	257,900,000	-
	사회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정 비율 지원	54	83,424,120	-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입주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 및 입주자 교육에 필요한 활동 비용 지원	7	12,509,752	-
기타	사회주택 행복가꿈이 시상	사회주택 유공자 (사업자, 입주자) 표창	4	3,000,000	-
	사회주택 행사 지원	사회주택의 날 행사지원, 사회주택 3법 개정을 위한 지원, 사회적주택 포럼 등	3	17,520,000	-
합계			231	476,069,472	

출처 : 나눔과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http://warmfund.net/p/index.php?mid=fund_02)

- 나눔과미래는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그림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 (사)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는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나눔과미래의 방향성은 같다”며 “협력 파트너인 민간단체에 대해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였다.

- 오세훈 시장 발표문 중 사회투자기금과 관련된 부분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에 기금 운용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 혈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